

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<p style="color: red;">6월 17일(목) 브리핑 시작(14:10) 이후 보도</p>			
배 포 일	2021. 6. 17. / (총 11 매)			
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	팀 장	황 경 원	전 화	043-913-2310
	담 당 자	방 은 옥		043-913-2322

## 7-9월 중 18세 이상 국민 1차접종 완료

- <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> 발표 -

- ◇ 9월 말까지 18세 이상 국민에게 1회 이상 접종 실시 → 총 3,600만 명 (인구의 70%) 1차 예방접종
- ◇ 2학기 전면등교 지원을 위해 여름방학(7~8월) 중 어린이집·유치원 및 초·중·고교 교직원 등 접종 실시
- ◇ 7월말부터 50대 장년층 우선 접종, 이후 40대 이하 사전예약 순 접종 실시
- ◇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(화이자, 모더나) 접종 시행, 사업체 자체 접종, 지자체 자율접종, 거동불편자 방문접종 등 접종편의 도모

□ **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**(단장 정은경, 이하 '추진단')은 9월 말까지 전 국민 70% 이상인 3,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, 18세~59세까지의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담은 <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> (이하 '시행계획')을 발표하였다.

○ 이번 시행계획은 <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>(1.28일)에서 제시한 **접종원칙\***에 따라, 상반기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백신 공급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,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(6.15일)를 거쳐 결정하였다.

\* ① 중증·사망 예방, ② 의료·방역, 사회필수기능 유지, ③ 지역사회 전파차단

## 1. 상반기 예방접종 추진상황

- 상반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, 취약시설, 코로나19 방역·치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·사망 위험 감소와 의료·방역체계 보호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.
  - 2월 26일 요양병원·요양시설 입원·입소자 등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1차접종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대한 결과, 4월 말 300만 명, 6월 15일 1,300만 명 접종에 이어 오늘 1,400만 명까지 넘어 전 국민의 27%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.
  - 현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의 1차 접종률은 76.4%\*(6.17일 0시 기준)로, 1회 접종 후 2주 경과 시 감염예방효과는 84%, 사망예방효과는 100%로 나타나, 고위험군 보호 및 감염취약시설 내 전파 감소 등 예방접종의 효과\*\*가 나타나고 있다.
- \* 1차 접종 기준 80세 이상 77.6%, 70~79세 83.9%, 60~69세 72.0%
- \*\* 2월 말(2.21~27일) 대비 6월 초(6.6~12일)의 사망자(42명→11명), 치명률 모두 감소

## 2. 3분기 예방접종 추진방향

- 3분기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.

### <추진목표>

- ① **9월말까지 3,600만명(전국민 70%)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**하겠습니다.
- ② **교육·보육 종사자 접종을 통해 2학기 전면등교를 지원**하겠습니다.
- ③ **50대 장년층 우선접종**으로 중증·사망위험을 낮추겠습니다.
- ④ 촘촘한 계획으로 **접종 사각지대(재가중증장애 등)를 해소**하겠습니다.
- ⑤ **접종기관 확충 및 접종경로 다양화**로 접종편의를 높이겠습니다.
- ⑥ **접종과 방역을 연계**, 일상회복과 전파차단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.

- 첫째, 3분기 중 2,200만 명 접종으로 9월 말까지 3,600만 명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달성한다.
- 둘째, 여름방학(7~8월) 중 어린이집·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하여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고, 수험생 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한다.
- 셋째,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\*를 고려하여 50대는 7~8월 중 우선접종을 추진한다.
  - \* (연령별 위중증 비율, 6.16일 기준) 80세 이상 10.1%, 70대 27.7%, 60대 39.6%, 50대 13.2%, 40대 5.7%, 30대 3.8%, 20대 0.0%
- 넷째, 거동불편 재가 노인·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,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한다.
- 다섯째, 예방접종센터 추가 설치(총 282개소) 및 화이자·모더나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으로 접종역량을 확대하고, 지자체 자율 접종, 사업체 자체접종 등 접종편의를 도모한다.
- 여섯째, 예방접종 목표와 방역조치 수준의 연계를 통해 접종참여 유도 등 접종률 제고 및 접종-방역의 선순환을 도모한다.

### 3. 3분기 접종대상별 접종계획

□ 7월부터 시행할 3분기 주요 접종 대상별 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[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]

- (60~74세 등 미접종자) 사전예약 증가에 따라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~74세 접종대상자 등은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.

- (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)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 30세 미만 중 6월 미접종자(약 7만 명, 잠정)도 사전예약을 받아 7월 초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.

\* 사전예약 (6.28일 0시부터 6.30일 18시), 접종(7.5~7.17일)

## ② [교육·보육 종사자, 대입수험생]

- 고등학교 3학년 학생, 고등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별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동의자에 대해 7월 19일 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.
  -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·등록 하고,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.
-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실시한다.
  - 당초 6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어린이집·유치원 교직원, 초등학교 1·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한다.

## ③ [50대 장년층]

-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중증 비율\*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50대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7월 26일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.
  - \* 70대 27.7%, 60대 39.6%, 50대 13.2%, 40대 5.7%, 30대 3.8%, 20대 0.0%
-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1~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, 55~59세부터 시작하여 50~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.

#### ④ [40대 이하 (18~49세)]

-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1·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, 본인 선택에 따라 **접종일시·기관을 결정**하고 접종을 실시한다.
- 그 밖에 사회적·신체적 제약으로 **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**(재가 노인·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, 노숙인 등)에 **맞춤형 대책을 마련**한다.
- 장애·거동불편 등으로 **접종기관 방문이 어렵고,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**를 위해 ①**이동 및 활동 지원**, ②**예방접종센터 특정 대상군 접종일 운영**, ③**의료기관 자체접종**, ④**방문접종** 등 대상군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**접종을 실시할 계획**이다.
- 또한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신속한 **접종 및 접종대상자의 편의**를 도모하고자 **지자체 자율접종, 사업체 자체접종**을 실시한다.

#### ① [지자체 자율접종]

- 지자체별 특성(인구구성, 산업구조 등) 및 **방역 상황**을 고려하여 **지역별 자체계획**에 따라 **필수인력, 고위험군** 등에 대한 **접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**이다.
- **지자체 자율접종 지침**을 참고하여 시도별 **배정물량 범위** 내에서 **지자체 자체계획**에 따라 **대상을 선정**하여,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**접종을 실시**한다. **접종일정**은 7월 말 이후 **백신 도입 상황**에 따라 **정해**질 예정이다.

## ② [사업장 자체접종]

- 종사자 접종편의를 위해 철강·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자체접종을 실시한다.
-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에서 사업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시기는 우선접종자(50대 등)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.
- 추진단은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접종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.
- 당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.5만회분이 6월 말 도입되어 2차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- 예방접종 전문위원회(6.15일)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해외사례\*나 연구결과 등을 고려 시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.
- \* 교차접종 허용 국가: 캐나다, 스웨덴, 독일, 프랑스, 핀란드, 이탈리아 등
- 그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.
- \* (스페인) 교차접종 시 체액성 면역반응 증가(AZ 1회 접종에 비해 결합항체 30~40배, 중화항체 7배 증가), (독일) 체액성·세포성 면역반응 증가 확인

- 이에 따라, 4월 중순 이후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(약2천개)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으신 분\*들로 7월에 2차 접종이 예정된 분(약76만 명)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.

\* 방문 돌봄 종사자, 의원 및 약국 종사자, 사회필수인력 등

- 다만 교차접종 대상(1차 AZ, 2차 화이자) 중 AZ백신 2차접종 희망자는 7월 19일 주 이후부터 AZ백신으로 접종 실시할 예정이다.

- 이 경우 접종간격은 현행과 같이 11~12주를 유지하고, 예약변경 없이 이미 예약된 접종기관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된다.

\* 다만 화이자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통지 예정

- 8월 이후 2차 접종 계획은 백신 수급상황, 국내외 연구,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
- 보다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<코로나19 예방 접종 3분기 시행계획>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#### 4. 일상회복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 당부

- 추진단은 그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 덕분에 상반기 접종목표(1,300만 명+a)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.

- 추진단은 1차 접종 후에도 의미 있는 예방효과가 확인되고, 추가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빠른 시간 안에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.

- 그 결과 접종예약자 중 접종일정이 변경되는 일부 대상자\*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대상자(예약·동의자)의 **접종이 대부분 완료\*\*** 되었다.

\* 60~74세 등 사전예약자,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(약 7만 명, 잠정)

\*\* 75세 이상(~6.13.), 60~74세 등(~6.19.), 예비군·민방위 등(6.10.~16.), 30세 미만 군 장병(6.7.~25.) 및 사회필수인력 등(약 20만 명, 6.15.~26.)

- 접종계획에 따라 **6월 중순부터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3주까지는**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1차접종보다는 백신별 접종 간격(화이자 3주, 아스트라제네카 11~12주)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**2차 접종 위주로 접종을 실시한다.**

- 아울러, 7월 접종 사전예약 진행, 위탁의료기관의 화이자, 모더나 백신 등 접종 준비 및 교육 등 **3분기 접종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계획**이다.

- 추진단은 3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은 **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**하므로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.

-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“3분기는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,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고 밝혔다. 아울러 “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”을 요청하였다.

<붙임>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관련 Q&A

<별첨>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

**붙임**

**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관련 Q&A**

**1. 3분기 예방접종의 특징**

- 상반기에는 중증·사망 예방과 의료·방역 및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초점을 두고 우선접종 대상 중심으로 접종계획을 수립하였다면,
    - 3분기는 전파차단과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초점을 두고 전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핵심임
  - 이를 위해, 8월부터는 우선접종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40대 이하 모든 분들에게 사전예약 기회를 부여하여 접종을 희망하고 필요한 분들이 먼저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수립함
    - 다만, 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 제약으로 접종을 희망하고 접종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\*에 대해서는 대상군별 맞춤형 접종대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음
- \*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·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, 노숙인 등
-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상황(인구구성, 산업구조 등),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접종과 사업장 자체접종도 추진 중에 있음
  - 세심하게 준비해서, 모든 국민들이 신속하면서도 편리하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

## 2. 40대 이하는 사전예약순 접종

- 40대 이하에 대한 사전예약순 접종은 50대의 1차접종이 완료되는 8월 중 실시할 예정
  - 50대는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\*를 고려하여 우선접종이 필요하지만,
    - \* (연령별 위중증 비율, 6.16일 기준) 80세 이상 10.1%, 70대 27.7%, 60대 39.6%, 50대 13.2%, 40대 5.7%, 30대 3.8%, 20대 0.0%
  - 40대 이하는 연령별 위험도 차이가 크지 않아, 연령보다는 접종 희망여부 및 필요성 등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함
- 다만, 제한된 백신 공급 물량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전예약 기회가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,
  -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임
  - 구체적인 내용은 백신 공급상황과 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

### 3. 교차접종을 시행하는 이유

- 당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.5만회분이 6월 말 도입되어 2차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,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 허용
- 예방접종 전문위원회(6.15일)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해외사례\*나 연구결과 등을 고려 시 백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 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
  - \* 교차접종 허용 국가: 캐나다, 스웨덴, 독일, 프랑스, 핀란드, 이탈리아 등
- 그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
  - \* (스페인) 교차접종 시 체액성 면역반응 증가(AZ 1회 접종에 비해 결합항체 30~40배, 중화항체 7배 증가), (독일) 체액성·세포성 면역반응 증가 확인